



6월 보고서

By. 필리핀 평가서난팀



CONTENTS



1. 덤프사이트

-넓은 세상, 다양한 연령대, 미술수업 그리고 *goodbye dumpsite*

2. 푸가로

-*Fun run, Green house*

3. 350PPM

-쓰레기 줍기, *Day-care* 연극

4. 그 외 활동

-*Bolinao, Baguio, YMCA Farewell*

MON	TUE	WED	THU	FRI	SAT	SUN
6월		1 덤프싸이트 Right	2 푸가로	3 푸가로	4 덤프싸이트 Feeding & 푸가로	5 REST
6 푸가로	7 덤프싸이트 Left	8 푸가로	9 덤프싸이트 Right	10 푸가로	11 덤프싸이트 Right	12 REST
13 푸가로	14 덤프싸이트 Left	15 푸가로 Daycare center	16 덤프싸이트 Right & 푸가로	17 Visa 연장일	18 Bolinao	19 350PPM 준비
20 푸가로 350PPM	21 덤프싸이트 Left	22 푸가로 Daycare center 연극	23 REST	← 24 → 25 → BAGUIO		26 덤프싸이트 Farewell
27 REST	28 REST	29 YMCA Farewell Party	30 HOMESTAY 준비			

DUMPSITE



덤프사이트 (넓은세상)

벌써 아이들과 함께 한 지 4달째를 맞이했다.
그러한 우리의 6월의 덤프사이트 목표는..

“ 아이들에게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자! ”

이 목표에 맞춰 우리는
넓은 세상을 주제로 아띠클라세를 진행했다!

덤프사이트 (넓은세상)

1. 지구 환경 교육

6월 첫째 주, right side에서 지구 환경 교육을 했다.
지난 달 left side에서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는 보완 할 점을
보완해 right side의 많은 아이들과 함께 (나름) 성공적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잘 마무리 했다.

덤프사이트(넓은세상)

2. 모자이크

그 다음으로 아띠들이 계획한 ‘다양한 세상’의 주제는 한국과 필리핀을 소개시켜 주는 것 이었다.

우선 아이들과 함께 국기 모자이크로 수업을 시작했고, 그 후 아이들에게는 생소할 한국의 문화들을 그림으로 가져가 간단한 소개를 했다. 또한, 필리핀에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도(ex. 보홀의 초콜릿 힐) 소개시켜주고 간단한 설명을 했다.

생각보다 다양한 세상을 알리는 쪽으로 수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수업을 재미있어 했다. 그거면.. 나쁘진 않다! 😊



덤프사이트 (다양한 연령대)

5월 쫘이었다.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책상 끄트머리에 앉아 아이들과는 조금 떨어져 종이접기를 하는 아기엄마가 있었다. 실은, 말이 아기엄마지 그녀는 겨우 2000년생 밖에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 친구.. 아니 넬라닌은 예전 라온아띠 기수와 아띠클라쎄를 했었다고 했다. (10기 오로라 단원이 말씀해주심) 그런 넬라닌을 보며 우리는 그런 친구들과도 소통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히니 덤프사이트 안에는 넬라닌 말고도 넬라닌과 같은 어린 아기엄마들이 많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모빌만들기’ 를 했다.

덤프사이트 (다양한 연령대)



사진을 너무 발로 찍은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이쁘다 ^0^



Kikay의 주도하에 잘 완성된 모빌! 뿌듯☺

덤프사이트 (미술교육)

다양한 세상 보여주기! 라는 목표를 정한 뒤 우리는 아이들과 한달 남짓한 시간을 잘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고 말았는데 그것은 ... 개학..!

새 학기가 시작되자, 덤프사이트의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학교로 갔다. 필리핀의 학교는 8시까지 등교를 하고, 11시 30분 쯤 밥을 먹으러 잠깐 집에 들렀다가 1시부터 다시 학교로 가서 4시까지 수업을 하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우리는 기껏해야 점심때 쯤 밥을 먹기 위해 귀가하는 아이들을 잠깐 볼 수 있는 정도였고..

우리는 밥 때를 맞춰 오는 아이들의 시간을 이용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했고, 그 대신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을 상대로 다양한 미술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은 대부분 무산 되어버렸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는 소식은 정말 반가웠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신들만의 넓은 세상을 잘 만들어 가겠지. ☺



Left side 에서.
학교에 가지 않은
Bugoy와

데칼코마니를
(=다양한 미술교육)
함께했다 ☺

덤프사이트(goodbye dumpsite)

우리는 7월이 되면 3주 동안 홈스테이를 가기 때문에 6월은 우리의 마지막 활동 달이었다. 4개월 남짓한 시간을 함께 보낸 덤프사이트 주민들과의 goodbye를 위해 우리는 가족사진 찍기와, 15기와 함께하는 마지막 피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덤프사이트(goodbye dumpsite)

*가족사진 찍기

가족사진은 우리가 국내훈련 때 계획했던 활동중의 하나로, 국내훈련 당시 이주문제를 겪고 있던 덤프사이트의 상황을 고려해 “덤프 사이트에서의 추억을 만들어주자!” 라는 생각으로 계획했다.

우리는 가족사진을 찍는 날(6/26.일요일) 전 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계획을 전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일을 해서 그런지 채 모이지 못한 가족들이 있었고, 아쉽게도 가족사진을 다 찍지는 못했다.

우리는 총 약 6가구의 가족사진을 찍었고, 7월 말에 인화를 하면 그 후, 우리의 코디네이터 롤리가 덤프사이트에 전달하기로 했다!



덤프사이트(goodbye dumpsite)

그리고 진행된 마지막 피딩 프로그램!

다른 날과 다르게 간식을 많이 준비해갔다.
아이들과 함께 놀며 사탕, 초콜릿과 같은 간식을 나누어 먹었고

그 후, 우리는 ‘아로스팔도’ 라고 하는 닭죽과 샌드위치를 준비해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며 마지막 피딩을 무사히 끝냈다. :)



ATTI's INTERVIEW : Dumpsite



동익 : 이전까지는 국영수와 같은 수업을 했다면 이번 달에는 예체능과 같은 수업을 진행한 것 같다. 그전보다 칼라풀하고 동적인 느낌의 한 달이 되었던 것 같다.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도 좋았던 시간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are well part에서 많은 도움을 준 Y친구들이 고맙다. 다 끝나고 YMCA로 가는 길에 트라이씨클2대, 자동차1대가 가는데 뭐랄까...파워레인저들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돌아가는 느낌?? ㅋㅋ굉장히 든든했고 Y친구들이 고맙다.

현식 : 그 동안 했던 단순한 알파벳, 숫자 수업이 아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띠클라세를 진행하였다. 그래서인지 준비하는 것조차도 즐거웠고,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과 함께 아띠클라세를 했을 때에는 뿌듯하기도 했다. 조금 미리 이걸 알았다면 훨씬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계획했던 것들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은 할 수 있어서 좋았던 한 달 이였고, 잘 마무리 짓고 왔다는 생각이 든다.



유림 : 6월에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세상을 알려주고 싶어서 수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준비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 지구 및 나라 수업 할 때 아이들이 관심과 흥미를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사진을 찍겠다는 소식을 미리 말씀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관계형성이 안되었다면 경계 했을 텐데 3월부터 관계를 잘 쌓아서 인지 우릴 가족, 친구처럼 생각해주어서 너무 좋아요!



연수 : 개학으로 인해 막판에 친구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 동안 방학으로 많은 친구들을 만났기에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날가림이 심했던 친구가 처음으로 먼저 다가와 주었을 때
'내가 그래도 이 곳에서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느꼈어요.
감동적이면서 앞으로의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친구들은 우리 라온아띠를 통해서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알았기를..!

다운 : 마지막을 끝내고 가는 순간에도 마지막 같지 않았다.
뭐가 됐든 꼭 한번 더 올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다시 올게. 다음에 다시 만나자. 자꾸 다음의 여지를 남기며 항상 현재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쉬운 마지막 한 달이었다.



PUGARO



푸가로 (Fun run)

필리핀에서는 학교 개학 전, 대대적으로 모든 학교가 대청소 행사를 가진다.
푸가로 학교(그린하우스가 있는 학교)에서 우리에게 이 행사 (행사 이름 Fun run)에 참여해주기를 권유했고,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우리는 학교에 가서 개학 맞이 준비를 도왔다.

우리의 주 활동은 푸가로 학교 주변 환경미화, 잡초 뽑기였고, 팡가시난Y를 대표해 학교에 필요한 물품기부(철물)도 했다.

푸가로 (Green House)



1. 이름표 만들기 (6/6)

푸가로에 도착하면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주는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과 함께 그린하우스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더 친해지기 위해 이름표를 만들었다.



2. 팻말 만들기 (6/8)

여러 아이들이 그린하우스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팻말 만들기를 계획했다. 우리는 그린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오크라, 빈, 가지, 토마토를 시장에서 사서 아이들과 함께 그려보는 활동을 했다.

푸가로 (Green house)



3. 팻말 전시 (6/10)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집으로 가져가 코팅한 후, 가렌더 형식으로 만들었다.

그 후 그린하우스 천장에 매달아 전시!



4. 그 외

그린하우스 활동 이외에도 몸놀이 및 상처치료를 했다. 상처치료를 진행 할 때, 의외로 아이들 몸에 상처가 많아 놀랐다.

ATTI's INTERVIEW : Pugaro



동익 : 중간평가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곳,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다. 푸가로에서 350ppm 활동을 했던 날에는 아이들과 환경교육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푸가로 청소도 하고 끝나고 다 같이 간식도 먹고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다. 잘 마무리 한 느낌이 든다.

현식 : 항상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던 푸가로는, 그 동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활동을 이어나갔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단순히 그린하우스 활동만이 아닌, 그린하우스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이 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 같다. 푸가로야 말로 더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은 사이트다. 단기간에 많은 즐거움을 얻은 곳이다.



유림 : 푸가로에서 6월, 한 달은 활동을 알차게 보냈다고 생각해요. 푸가로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 몸에 의외로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상처치료를 해주었습니다. 6월 중순쯤 되니 Day carecenter는 방학이 끝나고 푸가로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짧아져서 아쉬움이 커요..



연수 : 그 어느 때보다 제일 '뜨거웠던 푸가로 '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개학 ' 을 고려 못 해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
뽀뽀해주고, 제 머리를 예쁘게 땀아 꽃밭으로 만들어 주었던 친구들.
그 예쁜 마음이 항상 고마웠고, 덕분에 순간이 너무 소중한거예요.
늦게 알아버린 그곳의 가치, 흘러만 가는 시간이 아까웠던 우리의 그곳.
그만큼 열정적이고 즐거웠던 사이트였습니다.

다운 : 우리와 친해진 후, 처음 선착장에서 우리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이들을 보며
저 아이들의 기대를 어떻게 채울까 부담이 들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개학을 하
자마자 빈 선착장을 보면서 나는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Sayaw Kikay (춤추는 Kikay) 라는 노래를 부르며 함께 놀았던 아이들.
그 노래를 부르며 함께하던 친구들이 나를 놀렸던 것인지 잘 따랐던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과 함께한 짧고 굵었던 한 달이었다.



350PPM



우리는 푸가로에서 গ্রিনহাউস 활동을 통해 쌓은 관계를 토대로
마을 사람들 (주로 아이들)과 함께 350PPM을 계획했다.
활동으로는 마을 쓰레기 줍기와 350PPM 연극 이 두 가지를 했다.

350PPM (쓰레기줍기)

1. 분리수거 교육

필리핀에서는 Bio, nonbio, recycle의 형태로 분리수거를 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왜 분리수거를 왜 해야 하는지 알리고 분리수거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2. 마을 돌며 쓰레기 줍기

분리수거 교육내용 토대로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돌았다. 아띠들은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 한 손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을을 돌며 쓰레기를 주웠다.

3. 쉬는 시간 및 간식, 마무리

약 1시간 동안 함께 한 아이들과 우리는 간식을 나눠 먹고 쉬는 시간을 가진 뒤 쓰레기 줍기 활동을 끝냈다.



350PPM (Daycare 연극)

*Day care : 필리핀의 유치원. YMCA 야기스포츠단 같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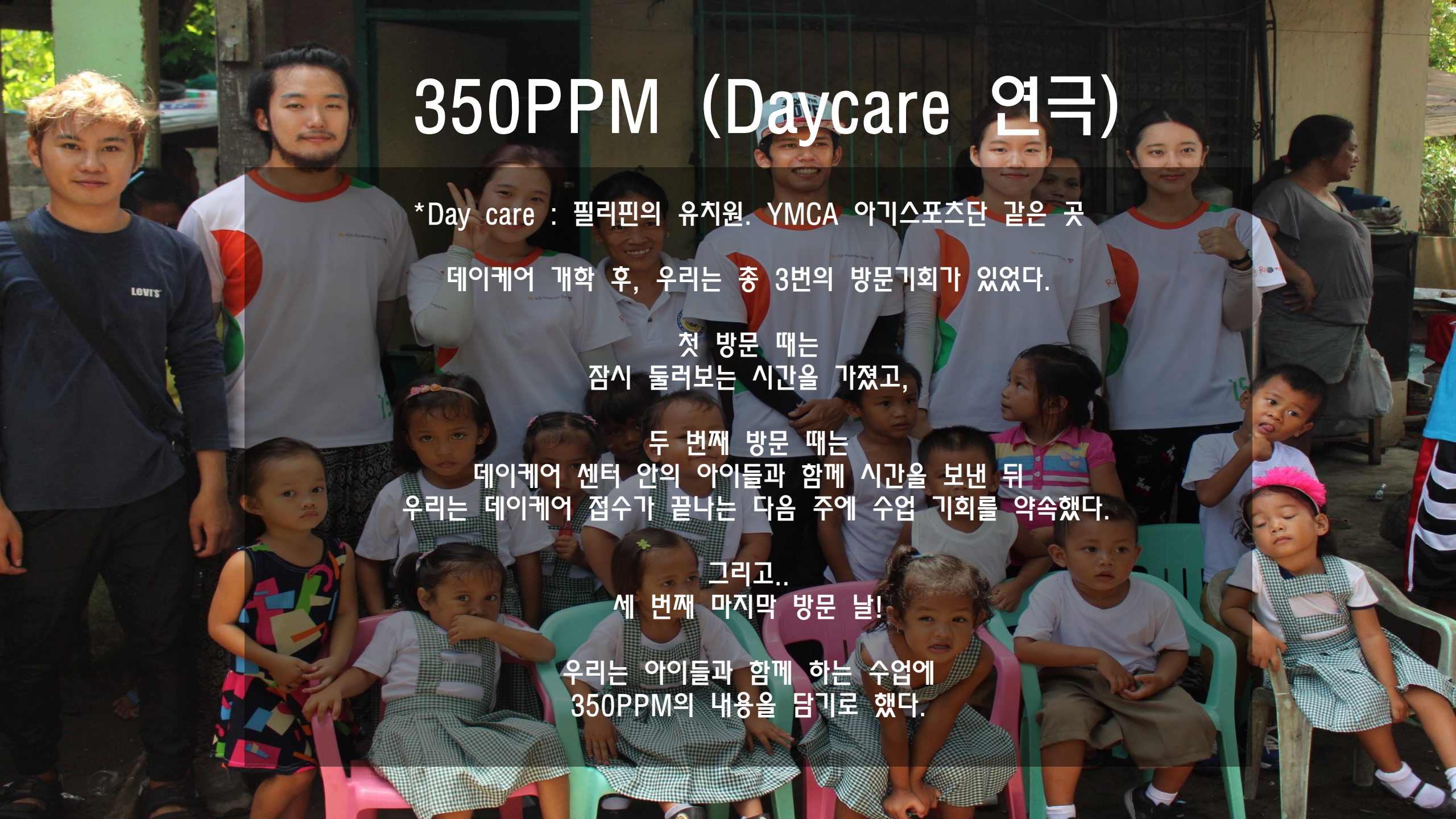
데이케어 개학 후, 우리는 총 3번의 방문기회가 있었다.

첫 방문 때는
잠시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방문 때는
데이케어 센터 안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우리는 데이케어 접수가 끝나는 다음 주에 수업 기회를 약속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방문 날!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수업에
350PPM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350PPM (Daycare 연극)

350 PPM 연극 내용

필리핀에서는 마트나 시장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데,
이것을 환경문제로 보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연극으로 만들어 보았다.

비닐 맨(동익) VS 장바구니 곁(연수) 이야기를 구성했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비닐은 지구에게 좋지 않으니
비닐봉투를 대신해 장바구니를 쓰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후, Fun run 행사 때, 음향시설문제로 하지 못했던 춤을
350PPM 연극을 마친 뒤 보여줄 수 있었다.

퍼포먼스 뒤, 남은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동물 종이접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 후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데이케어에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했다.

원래 350 캠페인 계획은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개학으로 인해 단기 프로젝트로 변경할 수 밖에 없어 아쉬웠다.



그 외 활동



Bolinao

저 멀리 일로코스Y의 Maam Elsie께서 팡가시난Y에 오신 금요일날 밤.

지미 총장님은 갑작스레 우리에게 수영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는데 같이 가고 싶으면 가자고 제안 하셨습니다. (원래 지미 총장님이 이런 식으로 급 제안을 잘 하심) 하지만 활동에 한창 지쳐있어 쉬는 시간이 필요했던 아띠들은 갈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고... 힘들긴 해도 한번 가보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큰 기대 없이 지프니에 몸을 맡기고 떠났고
그렇게 도착한 Bolinao라는 곳은...

정말 좋은 곳 이었다!

Hundred Island 보다 더 좋은 듯

만족도 별 다섯개 (★★★★★)

Baguio

Baguio는 항상 매 기수마다 방문했었던 필리핀의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이다.

그곳은 산에 위치해 있어서 한국 초가을의 선선한 날씨였다. 특히 다른 곳과 달리 유학생, 직장인 등의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 식당 또한 많았고, 덕분에 우리는 오랜만에 삼겹살과 돼지껍데기를 먹었다!

우리는 1박 2일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람막이를 꺼내 입으며 꿈만 같았던 시간을 보냈다.



YMCA farewell party

6월의 활동을 종료하며 우리는 7월에 있을 홈스테이 전, Y사람들을 위해 저녁식사를 준비했다. 메뉴는 소야(소시지 야채볶음), 김치 룸삐아(김치 만두 같은 것) 그리고 참치 카나페였다.

Y사람들 외에도 Lagring의 친구도 초대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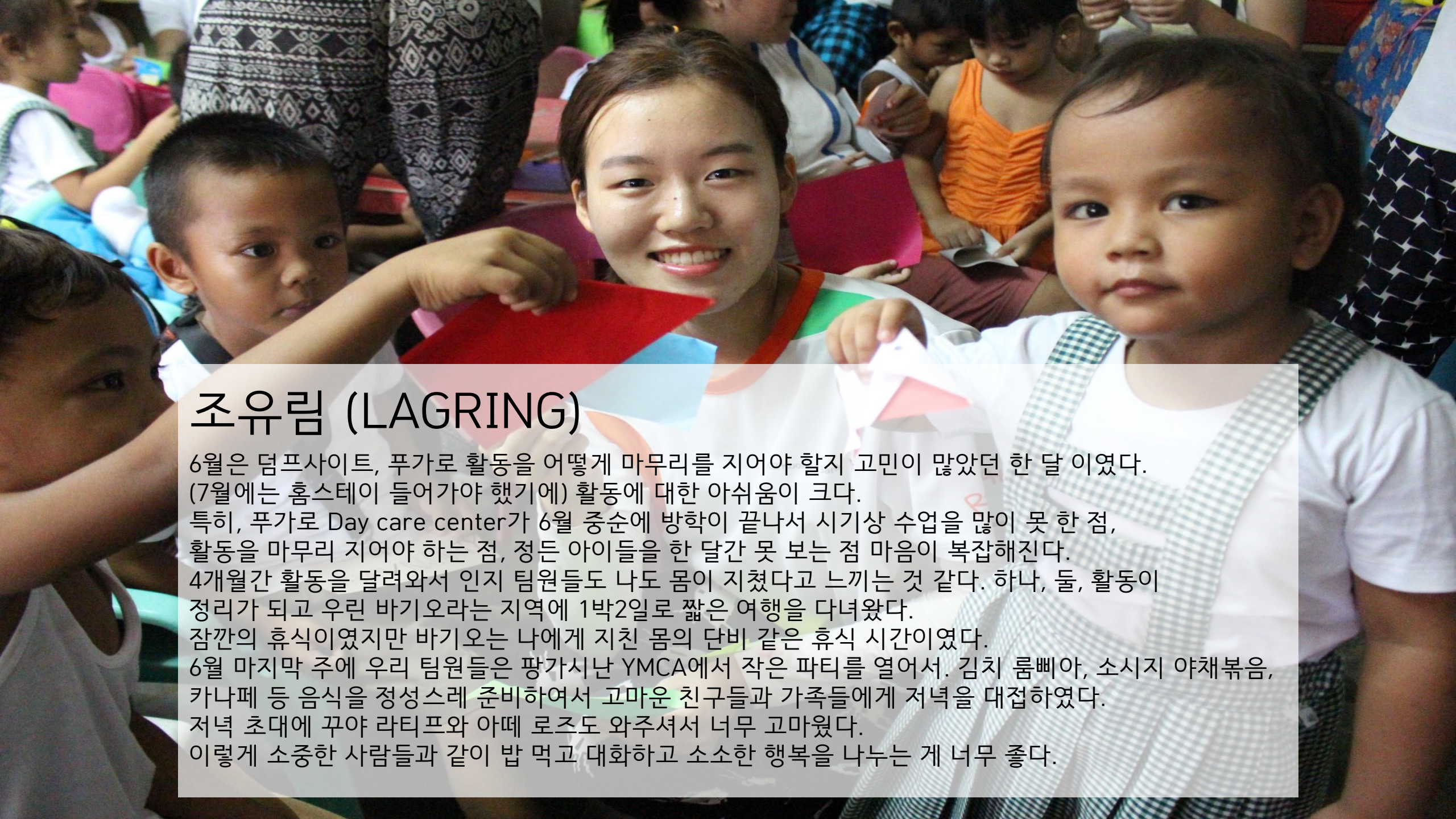
쏘야 (소시지야채볶음), 김치 룸삐아!
김치 룸삐아는 몇몇 친구들이 맵다고 했다 ㅋㅋㅋ



음식 비주얼에 한 번 놀라고 맛에 두 번 놀랐던
참치 카나페!

개인 에세이





조유림 (LAGRING)

6월은 덤프사이트, 푸가로 활동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한 달 이였다. (7월에는 홈스테이 들어가야 했기에) 활동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특히, 푸가로 Day care center가 6월 중순에 방학이 끝나서 시기상 수업을 많이 못 한 점, 활동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점, 정든 아이들을 한 달간 못 보는 점 마음이 복잡해진다.

4개월간 활동을 달려와서 인지 팀원들도 나도 몸이 지쳤다고 느끼는 것 같다. 하나, 둘, 활동이 정리가 되고 우린 바기오라는 지역에 1박2일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

잠깐의 휴식이었지만 바기오는 나에게 지친 몸의 단비 같은 휴식 시간이었다.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팀원들은 팡가시난 YMCA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서. 김치 룸뻬아, 소시지 야채볶음, 카나페 등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여서 고마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저녁을 대접하였다.

저녁 초대에 꾸야 라티프와 아떼 로즈도 와주셔서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게 너무 좋다.



#덤프사이트 아이들에게 끌려가는 도중#



#사랑스러운 푸가로 아이들과 수다#



#푸가로 청년들과 친구되다#



#꾸야 라티프, 아떼 로즈께서 저녁초대에 와주심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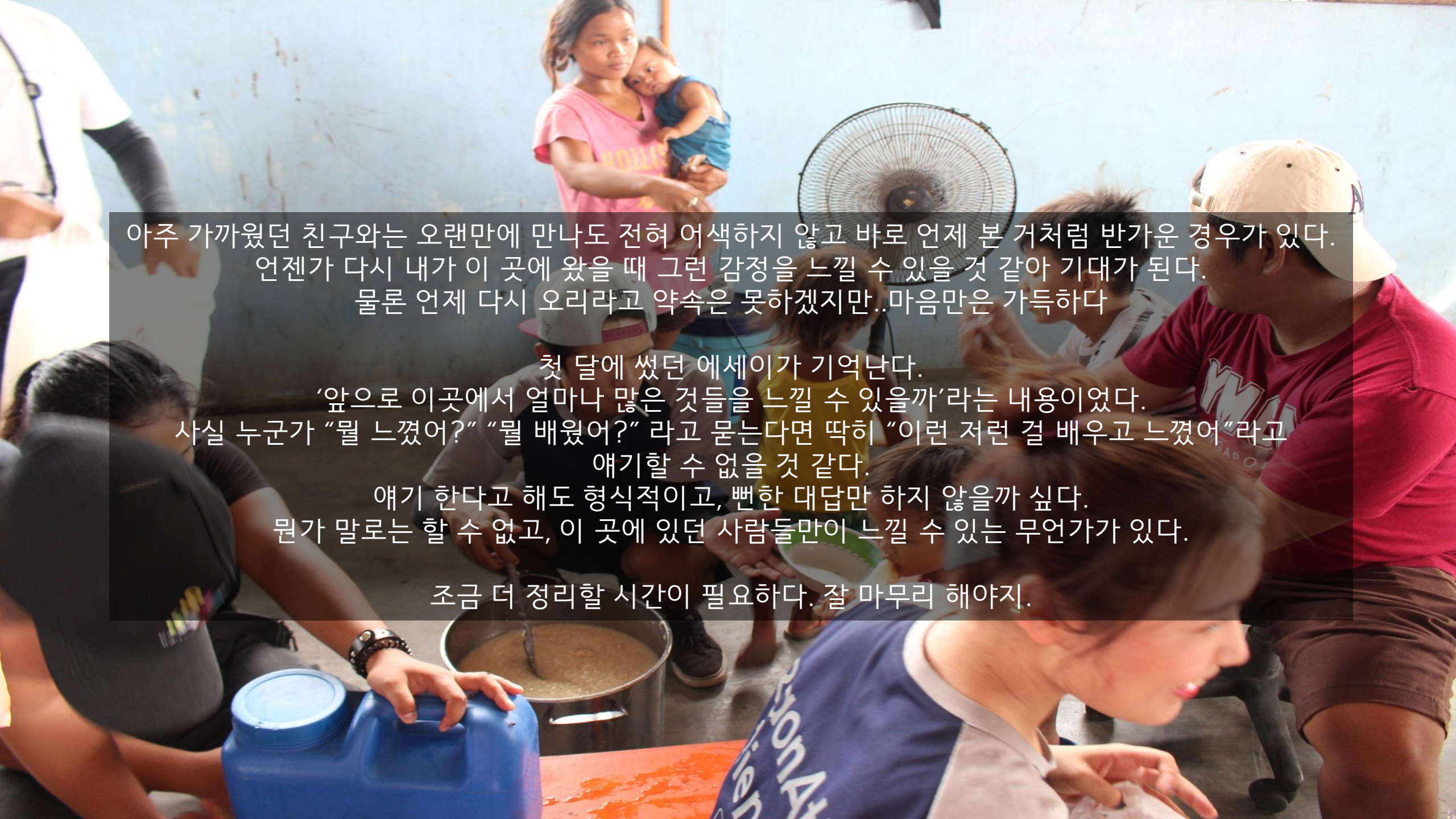
서현식 (ATONG)

홈스테이를 제외한 우리의 활동이 모두 끝났다.
처음 이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다. 사실 하루하루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고 해도 언제나 그렇듯 지나보니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다.

지금의 심정을 얘기하자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딱히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해야 할 것 같고 더 오래 여기 머물러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아마 모든 아띠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

한국에서 불리는 '현식이' '매드식'보다 여기서 불리는 'Atong'이라는 이름에 아주 익숙해졌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Atong'의 이름으로 살아갈 날은 없겠지만, 내 소중한 기억 어딘가에,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현지 친구들에겐 영원히 'Atong'이라는 이름으로 기억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주 가까웠던 친구와는 오랜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바로 언제 본 것처럼 반가운 경우가 있다.
언젠가 다시 내가 이 곳에 왔을 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물론 언제 다시 오리라고 약속은 못하겠지만..마음만은 가득하다

첫 달에 썼던 에세이가 기억난다.
‘앞으로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었다.
사실 누군가 “뭘 느꼈어?” “뭘 배웠어?” 라고 묻는다면 딱히 “이런 저런 걸 배우고 느꼈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

얘기 한다고 해도 형식적이고, 뻔한 대답만 하지 않을까 싶다.
뭔가 말로는 할 수 없고, 이 곳에 있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조금 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잘 마무리 해야지.



이다운 (KIKAY)

세계에는 아주 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듣성듣성 묶었을 때 우리가 대충 '아시아'로 묶일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너와 나 사이에 크지만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만으로 왠지 모르겠지만 큰 위안이 된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곳 보다는 '가까운' 사이구나 싶어서.

똑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으며 맛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실없는 농담에 피식하고 때로는 야유하면서 다를 것 없이 감정을 나누고 사랑하는,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를 것 없고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

나랑은 먼 것 같던 것들이 이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천체관측을 위해 산에 오르면, 적어도 약 30분 이상은 '암적응'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어두운 곳에서 적응을 해야 그 곳에서 밝은 별을 더 잘 볼 수 있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적응의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의 끝은 밝은 별이라는 아름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는 이 라온아띠의 시간이 암적응의 시간과도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고민이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다른 빛에 가리워져 있던 별빛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이곳 사람들과 내가 다를 것 없다는 깨달음이라던가,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들과의 행복한 시간들. 다른 빛에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밝은 별들. 실은 항상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들.

4달째. 우리는 활동을 종료했다.
영원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영원할 것처럼 살았던 내가 드디어 남은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

남은 시간 동안 아직 보지 못한 별들을 더 많이 보고 가고 싶다.





언니 오빠들이
괴롭혀요
ㅠㅠㅠㅠㅠㅠ
-막내의 수난시대

항상 꽃과 함께하는
싱그러운 19살~~*^^*
ㅋㅋㅎㅎ~~~
죄송(- -)(_ _)(- -)





박연수 (NARDA)

"관계"는 나의 생각 이상으로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것 이였다.

한국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관계를 포기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라온아띠는 달랐다.

나는 살아가는데 초점이 '내'가 아닌 '타인'에게 맞추어져 있다며 그들은 "나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 해 주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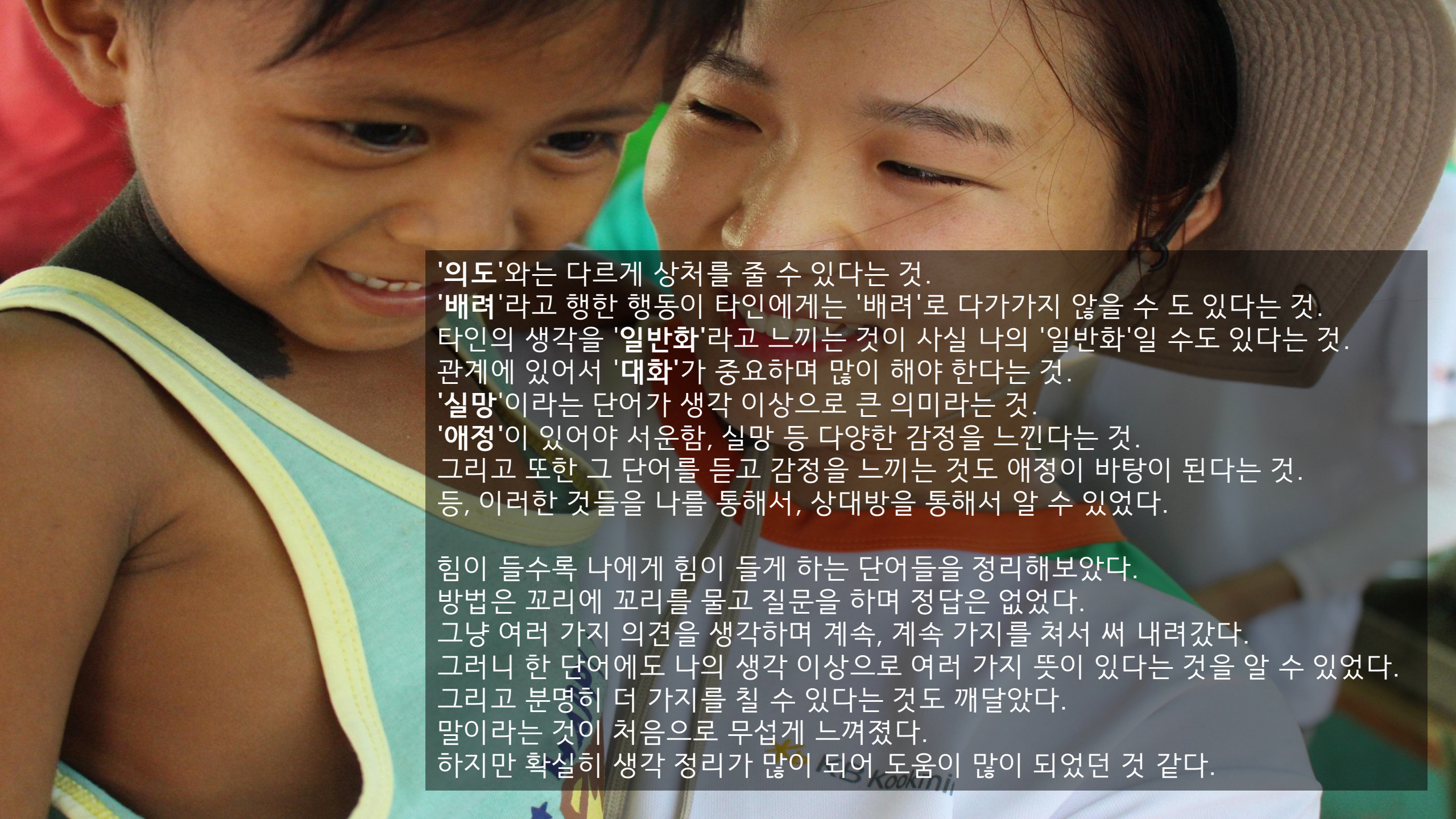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자 그들이 바라는 모습은 내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느꼈다. 무서웠다.

어느 것이 진심인지 모르겠고 혼란스러웠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난 최악중의 최악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되어 너무 힘들었다.

그냥, '관계'가 너무 힘들었었다.



'의도'와는 다르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배려'라고 행한 행동이 타인에게는 '배려'로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타인의 생각을 '일반화'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 나의 '일반화'일 수도 있다는 것.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중요하며 많이 해야 한다는 것.
'실망'이라는 단어가 생각 이상으로 큰 의미라는 것.
'애정'이 있어야 서운함, 실망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단어를 듣고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애정이 바탕이 된다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을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힘이 들수록 나에게 힘이 들게 하는 단어들을 정리해보았다.
방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며 정답은 없었다.
그냥 여러 가지 의견을 생각하며 계속, 계속 가지를 쳐서 써 내려갔다.
그러니 한 단어에도 나의 생각 이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분명히 더 가지를 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말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무섭게 느껴졌다.
하지만 확실히 생각 정리가 많이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전의 나는 관계란 결국은 누군가가 다가가야만 형성되는 것 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기'만을 했었다.
하지만 때때로 상대방을 위해, 나를 위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다리기'.... 아직도 힘이 들지만 조금씩 천천히 해 보려 한다.

이번 달에는 특히 나의 주변사람들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상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았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정말 "행복"한 아이라는 것을 느꼈다.

"함께 기다리자. 힘이 들 땐 언제든지. 새벽이라도 괜찮으니깐 언제든지 연락해."
관계에 지쳤을 때 제일 힘이 되었던 말이다.
'함께'...그 어느 때보다 이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그 단어의 힘을 느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닮은 부분이 있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
했는데 다른 부분을 느꼈다.
아! 사람은 다르구나. 하지만 모두 조금씩은 같은 점이 있구나!
다름을 찾아 고려하는 것(조심하는 것)은 좋지만, 그 다름이라는 생각에 묻혀
같은 점까지 못 보진 말아야지.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하고는 나에게 달렸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밍게만 보려
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선한 마음을 보기를 좋아하면서 미운 점만을 보려
했다니...
바보 같다.

더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하자.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소중하고, 시간은 흘러만 가니까.
많이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친구가 되자.

6월,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고 일깨워주었던 한달 이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라운아띠를 끝마친 후의 내가 기대가 된다 ☺



바귀오에 가서 바귀오 민족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았다.
어느것이 꽃인지 ~,~ →



← 푸가로 친구들이 머리를
예쁘게 땀아 꽃을 심어
꽃밭을 만들어주었다♥
완성된 다운과 연수 꽃밭~





변동익 (CARD0)

6월달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달 이었다. 7월에는 홈스테이를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은 끝이 났다. 돌아 보면 중간평가 이후로 힘을 충전하고 집중했던 것 같다. 다 끝난 후에는 소진이 된 것처럼 힘이 풀렸다. 활동에 있어서는 크게 아쉽다라는 느낌보다는 재미있게 아이들과 잘 놀았다? ㅋㅋ 라는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다.



6월 마지막 주에는 활동도 끝이 나고 홈스테이 준비를 하였는데 이는 정말 평가시난에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들고 집 주변을 돌면서 다시 돌아봤다. 아쉬운 마음에 그런 것 같다. 그리고 Y친구들과도 같이 수영을 하고 만찬을 즐기고 조금씩 정리를 했던 것 같다. 여기서 지낸 시간이 즐거워서 더 아쉬운 것 같다. 7월 한달 홈스테이를 잘 마무리 하고 마지막 까지 집중해서 잘 마무리 짓고 싶다.

감사합니다.
Salamat po!

필리핀 팜가시난팀 6월 보고 끝!!

